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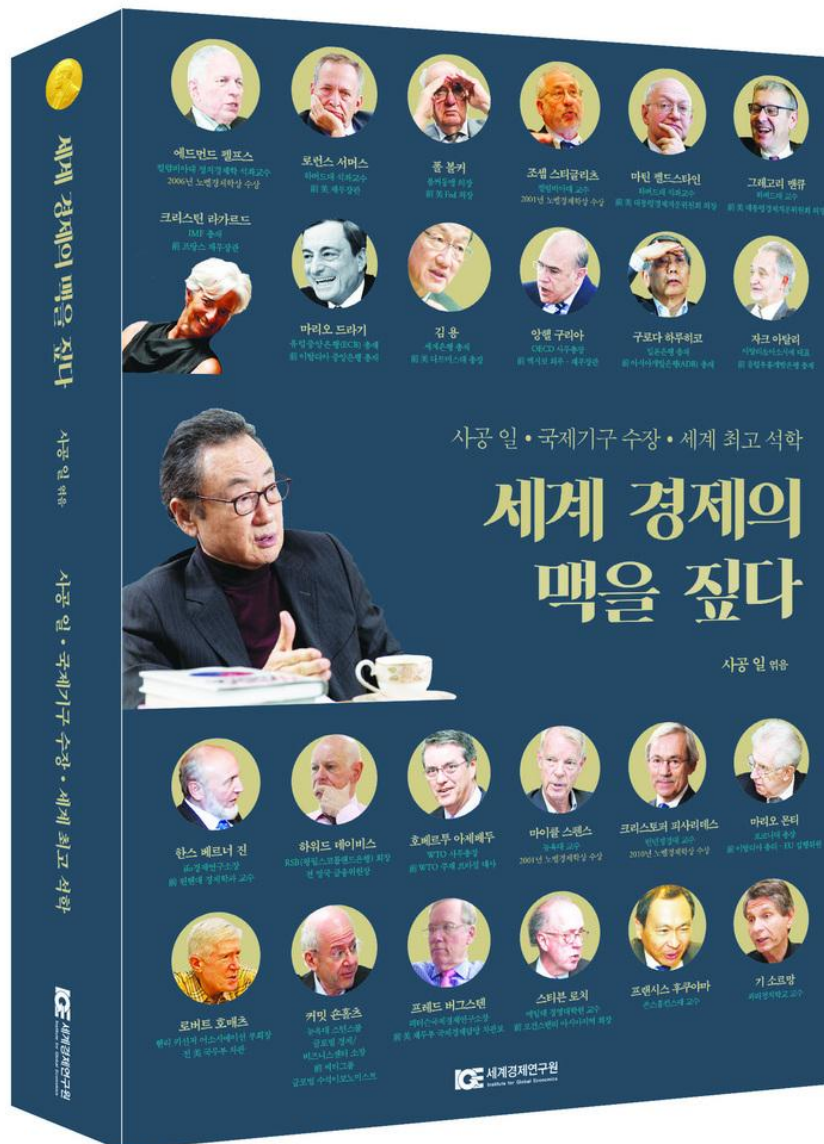
사공일 전 장관, 세계경제 수장·석학 24명과의 대담집 출간

등록 :2019-06-11 17:10 수정 :2019-06-11 17:29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 펴내

2015년부터 볼커·라가르드·드라기·아제베두 등

직접 만나 대담한 내용 엮어…노벨상 4명 포함



사공일(79) 전 재무장관(세계경제연구원 명예이사장)이 폴 볼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등 세계 경제기구

및 각국 통화정책 수장들과 마이클 스펜스, 에드먼드 펄프스, 조셉 스티글리츠,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교수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4명을 포함해 세계경제를 지휘하는 총 24명과 직접 만나 나눈 대담을 책으로 펴냈다.

11일 세계경제연구원은 사공일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세계 경제분야 수장 및 석학 24명과 각각 만나 나눈 대담내용을 담은 <세계경제의 맥을 짚다>(사공일 엮음·352쪽·세계경제연구원)를 이날 출간했다고 밝혔다. 대담자로는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 마틴 펠트스타인 전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하워드 데이비스 전 영국 금융위원장, 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 마리오 몬티 전 이탈리아 총리(유럽연합 집행위원), 스티븐 로치 전 모건스탠리 아시아지역 회장,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 기 소르망 파리정치학교 교수, 프레드 버그스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장, 커밋 손홀츠 전 시티그룹 글로벌수석이코노미스트 등도 포함돼 있다.

대담에는 세계경제의 현안과 전망뿐 아니라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경제의 최우선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미래, 나아가 창업과 기업가정신,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개혁, 노동시장과 고령화·여성문제, 부와 소득의 불평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미국과 중국의 위상과 전략 변화에 따른 세계질서의 불안정까지 중형무진 넘나드는 주제에 걸쳐 방대한 대담을 가졌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사공일 전 장관은 오랫동안 글로벌경제의 주요 인사들과 폭넓게 교분을 나누며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세계경제연구원은 “명예이사장이 수십년간 꾸준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들과 일대일 대담을 가질 수 있었다”며 “낙시광인 풀 볼커 전 의장은 낙시 일정을 미루고 대담에 응하고, 마리오 몬티 전 총리와는 기차 탑승을 앞두고 샌드위치를 먹으며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대담을 나눌만한 세계경제 주요 인사는 이제 거의 다 만난 셈”이라고 뒷얘기를 전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